

한국여성의 자기서사(1)

박혜숙 · 최경희 · 박희병*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여성의 자기서사의 텍스트들을 통해 여성적 정체성의 역사적 변화 및 자기서사의 양상과 의미를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둔 일련의 연구 중 제1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기서사의 개념 및 전통시대 한국여성의 자기서사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1.에서는 '자기서사'를 화자가 자기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에 입각하여 진술하며, 특정시기까지의 자신의 삶을 전체로서 성찰하고 그 의미를 추구하는 특징을 갖는 글쓰기 양식이라고 개념화하였다.

2.에서는 전통시대 한국여성의 자기서사와 비교되는 남성의 자기서사의 기본특징, 전통시대 한국여성의 자기서사적 글쓰기의 상황, 작자-독자 관계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여성의 존재조건 및 작자-독자 관계에 따라 자기서사의 동기와 대상이 달라지는 양상을 살폈다. 자기서사를 남긴 여성은 자신의 삶을 성공적인 것이라 여길 수도 있고, 고통스럽거나 실패한 것이라 여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이 당대의 평균적인 여성의 삶이나 혹은 이상적인 여성적 삶과는 무엇인가 다른 면이 있다고 인식한 점에서는 공통적이었으며, 그 다른 면을 인식하거나 정당화하는 차원에서 자기서사의 글쓰기를 했다. 그리고 자기 생의 의미가 타인에 의해 규정되거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해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자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특정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스스로 의미를 확정하려는 총동과 동기

를 공유하고 있다.

이하 전통시대 여성의 '자기서사의 주요작품에 나타난 여성적 자아', '자기서사와 지배가치의 관련양상', '자기서사에 나타난 여성의 경험들' 및 근대의 여성자기서사에 대해서는 후속논문에서 다루게 된다.

주요어: 여성적 정체성, 자기서사, 전통시대, 한국여성, 작가-독자관계

1. 서론

1)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

본 연구는 화자(話者)가 실제 살았던 삶을 근거로 하여 자기자신에 대해 진술하는 다양한 텍스트들을 '자기서사'로 개념화하고, 한국여성의 자기서사의 텍스트들을 통해 여성적 정체성의 역사적 변화 및 자기서사의 양상과 의미를 탐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¹⁾

*이 논문은 박혜숙(인하대학교), 최경희(시카고대학교), 박희병(서울대학교) 3인의 협동연구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관점과 방법은 3인이 논이에 의해 마련되었다. 그리고 실제집필에 있어서는 전반부는 박혜숙이, 후반부는 최경희가 대표집필한 후, 그 방법론적 일관성과 논리적 타당성에 대해 박희병이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논문이 완성되었다. 이밖에 게재하는 「한국여성의 자기서사(1)」과 다음에 게재할 「한국여성의 자기서사(2)」에서는 주로 전통시대의 서사를 다루며, 그 다음의 후속논문은 근대부분을 다루게 된다.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KRF-2000-042-A00043)

- 1) '자기서사'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여성의 자기서사에 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김성례, 「여성의 자기진술의 양식과 문체의 발견을 위하여」(『또 하나의 문화』, 제9호, 1994); 김연숙·이정희, 「여성의 자기발견의 서사, '자전적 글쓰기」(『여성과 사회』, 8호, 1997)가 대표적이며, 자기서사 작품들에 대한 개별 연구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본고는 '자기서사'라는 용어를 제안하면서 여성의 자기서사의 역사와 특질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자기서사'의 자세한 개념은 아래에 서술된다.

시기적으로는 조선후기 및 식민지시대에 산출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다. 조선후기와 식민지시대는 각각 '전통시대'와 '근대'라는 서로 상이한 시대에 귀속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급격히 전개된 식민지적 근대화로 말미암아 20세기 전반에 있어 한국여성의 존재조건과 글쓰기상황은 이전 시기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었다. 전통시대에는 여성이 단지 가족 내적 존재로만 규정되었으며, 여성들의 공적인 글쓰기는 거의 금기시되었다. 제한된 범위에서의 사적인 글쓰기만이 허용되었을 뿐이었다. 반면 근대에는 여성이 스스로를 사회적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되었으며, 학교교육과 근대적 출판문화로 말미암아 여성이 공적인 글쓰기의 주체로 대거 등장하게 되었다. 전통시대와 근대에 있어 여성의 존재조건과 글쓰기상황의 차이는 여성의 자기서사의 동기, 내용 및 성격, 텍스트의 유통 등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한국여성의 자기서사를 조선후기와 식민지시대의 텍스트, 달리 말해 전통시대와 근대의 여성적 텍스트의 상호대조를 통해 그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여성의 정체성과 자기서사의 역사적인 변모양상을 거시적으로 조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성적 자아의 근대로의 이행을 보다 적절하게 규명할 수 있으며²⁾ 나아가서는 한국여성의 현재를 구성하고 있는 전통과 근대의 혼합과 착종을 이해하는 데도 유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론에 앞서 몇 가지 언급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다. 하나는 20세기 전반에 산출된 이른바 '구여성'의 자기서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주지하듯이 근대로의 이행은 한국여성 내부에서 균질적으로 진전된 현

2) 근대로의 이행은 '개인의 발견'이라는 문화적 현상을 내포하는바,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이유로 인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개인'으로 개별화되는 데 더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의 자기서사는 성별차이와 관련하여 전통시대와 근대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면밀히 고찰하는 데 적절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

상은 아니었다. 20세기에 이르러 일부 여성들은 근대적이고 공적인 영역으로 진입함으로써 이른바 '신여성'으로 전화되어갔던 반면, 상당수의 여성들은 오랫동안 여전히 유교적 여성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적인 영역에 남아있었다. 자신도 깨닫지 못한 사이에 '구여성'으로 분류된 이들의 생활에도 부분적으로는 근대적 요소가 점차 확산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존재조건은 기본적으로 조선후기의 여성적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면이 많았다.³⁾ 구여성의 자기서사는 전통적인 글쓰기 형식인 규방가사를 통해 이루어지곤 했다. 따라서 비록 20세기 전반에 산출되었으리라 추정되는 여성 텍스트일지라도 여성적 경험이나 서사의 형식이 전통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선후기 텍스트와의 기본적 공통성에 유의하여 함께 논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한다. 본 논문에서 '전통시대'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조선후기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때로 20세기 전반의 구여성의 상황을 포괄하는 경우도 있음을 밝혀둔다.

다른 하나는 연구대상 시기의 상한선과 하한선의 문제이다. 연구의 상한선을 조선후기로 잡은 것은 여성의 자기서사가 처음 등장한 것이 조선후기였기 때문이다. 이후 식민지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자기서사는 꾸준히 양산되고 있으며, 각 시기에 따라 변모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세기 전시기에 걸친 여성자기서사의 역사적 연구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방대한 작업일 뿐 아니라, 식민지시대가 하나의 역사시기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일단 20세기 전반의 자기서사를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세기 전반은 식민지적 근대화라는 왜곡된 방식이긴 하지만 한국인이 근대를 처음 체험한 시기였다. 그런 점에서 20세기 전반의 근대적 경험은 20세기 후반의 근대적 경험의 구

3) 20세기 전 기간에 걸쳐 '구여성'이 근대적 삶의 조건으로 편입되어간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구여성의 근대체험'이라는 논문을 준비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20세기 전반에 산출된 텍스트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성과 관련하여 구조적 결정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20세기 전반의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후반의 연구도 학문적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다. 또한 20세기 후반의 분단체제는 남한과 북한의 여성적 상황과 자기서사에 있어서도 일정한 왜곡과 제약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분단 이전의 식민지시대 자기서사에 관한 연구는 식민지적 유제와 분단의 극복을 지향하는 분단시대 여성자기서사연구의 초석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2. 자기서사의 개념

이야기(story)가 있고 화자(teller)가 있는 모든 문학 텍스트를 서사(narrative)라고 한다면 화자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진술하는 텍스트를 일단 '자기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관련이 있기는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에 입각해 있지 않다면 '자기서사'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사실 자체와 글로 씌어진 사실은 별개의 것이다. 글로 씌어진 것은 작자에 의해 주장되고 구성된 사실일 뿐, 사실 그 자체와는 다른 것이다.

또한 자신과 관련이 있기는 하더라도 '자기자신'에 관한 사실보다 외적 세계에 관한 사실에 초점이 맞춰진 진술은 본격적인 자기서사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한 기행문이나 혹은 작자가 견문한 사건에 관한 기록은 자기서사라고 하기 어렵다. 그것은 외부세계에 대한 진술일 따름이다. 또한 자기 자신에 관한 사실의 진술보다 자기의 감정이나 정서상태의 표현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자기서사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한 서정시도 자기서사라고 하기 어렵다.

'자기자신'에 관한 사실이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인생은 어떤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의 성격을 갖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자기서사는 자신의 일생이나 혹은 특정시점까지의 삶을 전체로

서 고찰하고 성찰하며 그 의미를 추구하는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자기서사’란 화자가 자기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에 입각하여 진술하며, 자신의 삶을 전체로서 성찰하고 그 의미를 추구하는 특징을 갖는 글쓰기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서사’는 단일한 장르개념이 아니며 다양한 장르를 포괄한다. 오늘날의 자서전은 ‘자기서사’의 대표적 유형이다. 서구의 근대적 자서전으로서의 ‘autobiography’는 서구에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성립되었고,⁴⁾ 20세기 전반에 동아시아문학에 도입되었다. 20세기 전반에 ‘autobiography’의 역어(譯語)로서 ‘자전’ 혹은 ‘자서전’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으며⁵⁾, 서구의 근대적 자서전의 영향을 일정하게 수용하면서 일본에서는 후쿠자와 유키지(福澤諭吉)의 『福翁自傳』(1899)이, 중국에서는 곽말약(郭沫若)의 『沫若自傳』

4) 1786년 ‘autobiographical narrative’라는 형용사가 최초로 나타나고 ‘autobiography’ 내지 그와 동의어인 ‘self-biography’는 18세기 후반에 영국 독일 등에서 별도로 사용되었다고 한다.(Robert Folkenfic ed., “The Culture of Autobiograph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용어의 성립과 특정양식의 확립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물론 서구에서도 근대적 자서전 양식의 성립 이전에 다양한 자기서사의 글쓰기가 존재했다고 한다. 독일의 연구자에 의해 “Geschichte der Autobiographie”, 고대편 2권(1907), 중세편 3권(1923-31)이 출간된 바 있는 데, 이 저술에서는 고대로부터 아우구스티누스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자기서사 양식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佐伯彰一, 『自傳の世紀』, 東京: 講談社, 1985)

5) 서구적 근대적 자서전을 의미할 경우, 일본에서는 ‘자전’, 중국에서는 ‘자전’ 혹은 ‘자서전’, 한국에서는 ‘자서전’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었다. 그런데 중국과 한국에서는 중세에 이미 ‘자전’이라는 용어가 있었다. ‘자전’은 한문학의 한 장르였던바, 전통적인 이 ‘자전’과 구분하기 위해 서구의 근대적 ‘autobiography’는 ‘자서전’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한편 일본에서는 다양한 자기서사의 작품이 중세에 이미 다수 존재했으나 ‘자전’이라는 용어는 근대에 이르러서부터 사용되었다고 한다.(Edward Seidensticker, 『自傳の特質とその範圍』, 佐伯彰一編, 『自傳文學の世界』, 東京: 朝日出版社, 1983, 29면 참조.)

중국의 근대 소설가 옥달부(郁達夫, 1896~1945)가 아나톨 프랑스의 말을 빌어 “문학작품은 모두 작가의 자서전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동아시아문학에서는 이처럼 20세기 전반에 ‘자서전’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다.

(1929)⁶⁾, 호적(胡適)의 『四十自述』(1931) 등이 산출되었고⁷⁾ 한국에서도 1920년 경부터 홍명희, 최린, 이광수 등 여러 인물들이 ‘자서전’이라는 통칭(通稱)으로 다양한 자기서사의 글을 잡지에 실기 시작하였다.⁸⁾ 20세기 전반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자서전 작가들은 대체로 일찍이 서구문화를 수용하면서 근대적 자아에 눈을 뜬 사람들이 많았으며, 다분히 서구의 자서전 양식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글을 썼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처럼 20세기의 동아시아에서 자서전은 서구적 양식으로 인지되면서 자기서사의 대표적 양식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도 본격적인 자서전만이 아니라 자전적 소설, 편지, 일기, 수필 등 다양한 형식의 자기서사가 존재한다. 그러한 글쓰기가 모두 전형적인 자서전이 갖는 특징들을 갖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서구적인 자서전 형식이 수입되기 이전부터 동아시아문학에는 다양한 자기서사의 글쓰기가 존재했다. 그러므로 서구의 ‘autobiography’의 역어로서의 ‘자서전’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자기서사의 글쓰기를 포괄하는 명칭으로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자서전적 진술’, ‘자전적 서술’, ‘자전적 서사’ 등 ‘자서전’에서 파생된 용어들도 서구적 자서전과 관련한 기존의 통념들을 연상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다 포괄적이고 간결한 용어인 ‘자기서사’를 이 글의 기본 분석용어로 정한다.

6) 『말약자전』은 모두 4부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제1부인 『我的童年』은 1929년에 처음 출판되었다.

7) 胡適의 자서전보다 앞서 梁啓超의 『三十自述』(1902)이 있긴 하지만, 단편에 불과하며 전통적 형식에 가깝다고 한다. 川合康三, 『中國の自傳文學』(創文社, 1996).

8) 20세기 전반 한국에서 근대적 자서전이 도입·전개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근대 여성의 자기서사’를 논할 때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3. 전통시대 여성의 자기서사

1) 전통시대 남성의 자기서사

중세 동아시아의 자기서사 동아시아의 문학사에서 최초의 자기서사는 사마천(司馬遷)의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이다. 이 글은 「사기열전」의 마지막 편으로서, 「사기」라는 저술에 붙인 작자의 자서(自序)로서의 성격과 사마천 자신 및 아버지 사마담 부자(父子)의 전기(傳記)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반고(班固)도 「태사공자서」의 문학적 관습을 계승하여 「한서열전」에 「서전(敘傳)」을 덧붙인 바 있다. 「태사공자서」와 「서전」은 한문학장르 중에서 자기서사의 대표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자서’⁹⁾ 및 ‘자전(自傳)’의 원류라고 할 수 있다. 사마천과 반고의 글은 독립된 자기서사의 글쓰기라기보다는 역사서의 한 부분으로서의 성격이 다분히 존재한다. 독립된 자기서사의 작품으로는 도연명(陶淵明, 365~427)의 「오류선생전(五柳先生傳)」이 최초의 것이다.¹⁰⁾ 이후 왕적(王績, 590~644)의 「오두선생전(五斗先生傳)」, 백거이(白居易, 772~846)의 「취음선생전(醉吟先生傳)」, 육구몽(陸龜蒙, ? ~881?)의 「보리선생전(甫里先生傳)」, 구양수(歐陽修, 1007~1072)의 「육일거사전(六一居士傳)」 등이 이어졌다. 이들 작품은 한문학의 장르분류

9) ‘自敘’ 혹은 ‘自序’라 표기되었다. 「文體明辨」의 ‘序’ 항목에서는 “按「爾雅」云：‘序，緒也。’字亦作‘叙’，言其善敘事理，次第有序，若絲之緒也”(「文章辨體序說·文體明辨序說」, 台北：長安出版社, 1978)라고 한바, 문체적으로 ‘序’와 ‘敘’는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0) 전통적인 한문학의 장르분류법에 따르면 이 작품은 전(傳) 장르에 해당되며, 전 중에서도 탁전(托傳)에 속한다. ‘탁전’에는 작자 자신이 입전의 대상이 된 자전적 탁전과 다른 인물의 행적에 가탁하여 우의(寓意)를 설파한 탁전의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 모든 탁전이 자전, 즉 자기서사는 아니었던 것이다(박혜숙, 「고려 후기 ‘전’의 전개와 사대부의식」, 「관악어문연구」 제11집, 1986, 143면 참조). 도연명의 「오류선생전」이 자전적 탁전의 대표적 작품이라면 유충원의 「송수곡탁타전」은 우의적 탁전의 대표적 작품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논의의 간결성을 위해 ‘자전적 탁전’이라는 용어 대신 ‘자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에 따르면 ‘전(傳)’ 장르에 해당되며, 자기자신을 입전(立傳)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자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자전’이라는 용어는 중당(中唐) 시대에 등장하였고 문학용어로서 정착되었다.¹¹⁾ ‘자전’은 이 시기에 이르러 동아시아 한문학에 있어 자기서사의 대표적 형식으로 확립되었다.

자기서사의 또 다른 형식인 ‘자서’는 사마천의 「태사공자서」에서 유래하며, 독립된 작품으로서는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자서」가 최초의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한문학의 한 장르인 제문이나 묘지명을 이용해 자기서사를 시도한 경우도 더러 있었다. 도연명의 「자제문」(自祭文), 왕적의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 백거이의 「취음선생묘지명」, 두목(杜牧, 803~852)의 「자찬묘지명」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¹²⁾

이처럼 중세 동아시아 한문학의 자기서사 장르로는 ‘자전’, ‘자서’, ‘자찬묘지명’ 등이 대표적인 것이었고, 중세의 중국이나 한국 한문학의 자기서사는 대개 이들 장르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본문학의 경우는 자국어(漢字)를 표기하는 수단으로서 ‘가나’가 일찍부터 발달해 있었던 데다가, 한문학이 자국문학의 주류를 이루지는 않았다는 역사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자기서사의 글쓰기는 주로 ‘가나’를 이용한 자유로운 형식의 글쓰기를 통해 이루어졌다. 헤이안(平安)조에 이미 「가게로닛끼」(蜻蛉日記), 「시키부닛끼」(紫式部日記)를 비롯한 여성들의 자기서사가 ‘일기’ 형식으로 다수 산출되었으며, 에도(江戸)시대에는 「折たく柴の記」, 「宇下人言」, 「配所殘筆」 등 사무라이 남성들의 자기서사가 다수 산출되었다. 특히 10, 11세기 헤이안조 일본 여성의 자기서사는 동아시아문학 뿐 아니라 세계문학사에서든 이른 시기에 창작된 자기서사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상의 개괄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동아시아문학에 있어 자기서사의 글쓰기는 이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11) 川合康三, 앞의 책, 10면,

12) 이상 중국의 자기서사에 대해서는 川合康三, 앞의 책 참조.

전통시대 한국남성의 자기서사 한국의 경우, 남성의 자기서사는 고려중기 이후 조선시대의 전시기에 걸쳐 꾸준히 창작되었다. 고려와 조선의 문학의 주류는 한문학이었기에 남성의 자기서사 역시 한문학의 장르인 '자전', '자서', '자찬묘지명' 등을 통해 주로 창작되었다.

자전의 경우, 고려시대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백운거사전(白雲居士傳)」, 최해(崔滢, 1287~1340)의 「예산은자전(倪山隱者傳)」, 조선전기 성간(成侃, 1427~1456)의 「용부전(慵夫傳)」이 산출되었고, 조선후기에는 '자전'이라는 용어가 정착되었을 뿐 아니라 권창익(權昌益, 1562~1645)의 「호양자자전(湖陽子自傳)」, 조임도(趙任道, 1585~1664)의 「자전」, 유한준(兪漢雋, 1732~1811)의 「자전」, 김창희(金昌熙, 1844~1890)의 「계원퇴사자전(溪園退士自傳)」 등¹³⁾ 다수의 자전이 창작되었다.

한편 '자서' 도 상당수 창작되었던바, 이식(李植, 1584~1647)의 「택구거사자서(澤龜居士自叙)」, 허목(許穆, 1595~1682)의 「자서(自序)」, 홍양호(洪良浩, 1724~1802)의 「태사씨자서(太史氏自序)」가 대표적이며, 자찬묘지명으로는 정약용의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이 대표적이다.

한편 일기나 잡록, 가사 같은 장르를 통해 자기서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선문의 기록 내시는 여행이나 유배체험의 단순한 기록으로서의 성격과 자기서사로서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거나, 혹은 자기서사로서의 성격은 미약한 경우가 많았다. 자기 인생을 하나의 전체로서 성찰하고 그 의미를 추구하려는 의도로 씌어진 남성의 자기서사는 그리 많지 않다. 유한준의 일기 「흠영(歆英)」의 일정 부분, 최제우의 가사 「용담가」가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전통시대 한국남성의 자기서사는 고려중기 이후 조선시대 전시기에 걸쳐 꾸준히 산출되었으며 주로 한문 장르인 '자전', '자서', '자찬묘지명' 을 통해 이루어졌다.¹⁴⁾ 자전의 문학적 관습은 자기자신에 관해

13) 조선시대 자전에 어떤 작품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은 군이 도움을 주었다.

서술하되 마치 자신이 아닌 제3의 인물에 대해 언급하듯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는 특징이 있었다. 자전의 작자는 스스로를 '나'라고 지칭하지 않고 제3자처럼 서술하곤 한다. 또한 자전은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나 경험을 계기적으로 서술하는 측면은 미약하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 자신의 생애에 대한 태도나 인간적 특질을 묘사하는 데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자전의 특질 이면에는 자신을 일반인과 구별되는 독특한 개인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해 해명하거나 혹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자전 특유의 작가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한편, '자서'와 '자찬묘지명'은 자신의 가계(家系)를 상세히 서술한 다음, 관직생활이나 학문과 관련된 자신의 공적인 생애를 매우 사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특징이 있다. 자서와 자찬묘지명의 작자는 자신을 특정 가문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공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파악하고 그에 입각하여 자신의 생애를 기록으로 남기고 역사화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전통시대 한국남성의 자기서사가 개인의 독특한 정체성을 문제삼거나 혹은 공적이고도 사회적인 정체성을 중시한다는 점은 전통시대 한국 여성의 자기서사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적인 면모라고 할 수 있다.

2) 여성의 자기서사적 글쓰기의 상황

조선의 여성은 남녀유별(男女有別)의 유교적 성별이데올로기에 의해 철저히 가족 내적 존재로 규정되었으며, 가족이나 친족공동체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은 궁녀, 기녀, 의녀, 무녀 등 특수계층 여성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¹⁴⁾ 여성에 대한 문자교육도 극히 제한적이고 사적인 범

14) 자전, 자서, 자찬묘지명 등 정통한문학 장르 외에 한문일기나 잡록 혹은 한글로 기록된 남성의 자기서사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에 관한 자세한 연구는 워낙 방대한 자료조사를 요하는 것이기에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15) 조선후기에 이르면 점차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산되었다. 그렇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이 공식적·사회적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위에서만 이루어졌으며, 여성의 글읽기와 글쓰기는 권장되지 않았다. 조선 여성의 학교교육은 융희 2년(1908)의 ‘고등여학교령’ 이후 비로소 가능하게 된 일이었다.¹⁶⁾ 조선전기의 서거정(徐居正)이 “부인으로서 글을 아는 자는 매우 적다. 세상에서는 부인이 글을 알면 팔자가 사납다고 말한다”¹⁷⁾고 기록한 것이나, 조선후기의 성호(星湖) 이익(李瀾)이 “책을 읽고 의미를 궁구하는 것은 사내 대장부의 일이다. 부인들에게는 아침저녁 식사를 마련하고 날씨에 맞춰 의복을 준비하며 제사지내고 손님 접대하는 일이 있으니, 어느 겨를에 책을 읽고 시를 읊조리겠는가?”¹⁸⁾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의 글읽기는 전혀 장려되지 않은 것이 조선시대의 보편적 상황이었다. 조선시대의 ‘말/글’ 관계에서 글은 기본적으로 남성성별화된 매체였다.

그러나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의 보조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교육은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초보적인 유교적 교양 교육을 위한 글읽기의 필요성은 부분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글쓰기는 금기시하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이덕무(李德懋)는 “부인은 경서와 사서, 『논어』, 『시경』, 『소학』, 그리고 『여사서(女四書)』를 대강 읽어 그 뜻을 통하고, 여러 집안의 성씨, 조상의 계보, 역대의 나라 이름, 성현의 이름자 등을 알아둘 뿐이요, 힘부로 시시(詩詞)를 지어 외간에 퍼뜨려서는 안된다.”¹⁹⁾고 하였다. 그리고 『내훈』에서는 여자도 『논어』와 『효경』, ‘여계(女戒)’ 등을 배워 그 대의를 대략 깨쳐야하지만 여자에게 시짓기를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으며²⁰⁾, 아울러 중국의 후부인(侯夫人)이 “글을 좋아했으나 문장을 짓지는 않았고, 부녀자들의 문장이나 편지가 사람들에게

16) 이능화, 김상억 역 『조선여속고』(동문선, 1990), p. 532.

17) 『婦人解文者, 甚少, 若解文, 則俗謂命薄』(『東人詩話』) 下

18) 『讀書講義, 是丈夫事, 婦人有朝夕寒暑之供, 鬼神賓客之奉, 奚暇對卷誦詩哉』(『星湖雜說』)

19) 『婦人, 當開讀書, 史, 論語, 毛詩, 小學書, 女四書, 通其義, 識百家姓, 先世講系, 歷代國號, 聖賢名字而已. 不可浪作詩詞, 傳播外間』(이덕무, 『사소절』 제7 부의)

20) 『내훈』 「모의장」

게 전해지는 것을 몹시 옳지 않은 일로 여겼다”며 여성의 글쓰기를 부정적으로 본 후부인의 태도를 칭송하였다.²¹⁾ 『규중요람(閔中要覽)』에서는 “여자는 역대 국호와 선대 조상의 명자(名字)를 알면 족하지 문필의 공교함과 시사(詩詞)를 아는 것은 창기(娼妓)의 본색이지 사대부 집안의 취할 바가 아니다”라고 했다.²²⁾ 홍석주(洪奭周, 1774~1842)는 자신의 어머니가 글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에다 글씨 쓰는 일은 “부인의 일이 아니라”며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이현일(李玄逸, 1627~1704)은 자신의 어머니가 시를 잘 지었지만 “시 짓고 글쓰는 것은 모두가 여자의 일로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마침내 끊어버리고 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기도 했다.²³⁾ 이상의 언급들을 통해 여성의 글읽기는 부분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었지만 여성의 글쓰기만은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²⁴⁾ 조선시대의 ‘읽기/쓰기’ 관계에 있어 ‘쓰기’는 그야말로 남성성별화된 행동방식이었고, 여성은 ‘읽는 사람’이 혹 될 수는 있을지언정 ‘쓰는 사람’이 되어서는 곤란하였다. 글과 의미의 생산자는 남성이고, 여성은 원한다면 그 소비자

21) 「내훈」, 「언행장」.

22) 『규중요람』은 퇴계의 저술이라고 전해지나, 실제 작자는 누구였는지 분명치 않다고 한다. 이혜순 외,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태학사, 1999), p. 302에서 재인용.

23) 박석무 편역, 『나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현대실학사, 1998) 참조.

홍석주의 어머니는 영수합(令壽閣) 서씨인데 문집으로 『영수합고』가 있다. 이현일의 어머니는 이문열의 소설 『선택』으로 더욱 유명해진 貞夫人 張氏이다.

24) 조선시대 남성들의 여성글쓰기에 관한 생각에는 이윤배반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공식적으로는 여성의 글쓰기를 부정하면서도 자기 가문 여성의 글쓰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경우도 많았다. 그 경우에도 대개는 해당 여성들이 글재주가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뛰어난 부덕에 비하면 글솜씨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단서를 붙이곤 했다. 때로 자기 가문 여성의 글을 묶어 문집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가문의 높은 교양수준을 드러내는 것이 주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조선남성의 여성글쓰기에 관한 공식적 입장과 비공식적 태도의 모순적 측면에 관해서는 별도의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기에 이 논문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될 수 있을 뿐이라고 간주되었던 셈이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여성답지 않은 행동으로 간주되었고, 그런 점에서 여성의 글쓰기는 종종 사회적 심리적 장애물 넘기를 수반하는 행위였다.

여성의 글쓰기 중에서도 한문글쓰기는 더욱 어려웠다. 한문학습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바, 여성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이었다. 한문글쓰기는 주류적인 글쓰기이자 남성의 글쓰기로서 확고한 문학적 관습이 확립되어 있었기에, 한문으로 글을 쓰는 것은 남성언어의 관습과 역사에 통달함을 의미하였다. 양반여성이나 기생여성 중에서 더러 한문으로 글쓰기를 한 경우가 있었으나 비교적 손쉬운 단형의 한시 창작에 집중되었다.²⁵⁾ 여성이 한문으로 자기의 생각과 체험을 자유로이 서술하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았다. 조선의 여성이 남성자기서사의 주요 장르였던 자전, 자서, 자찬묘지명 등을 통해 자기서사를 남긴 경우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한문학 장르는 전통과 규범이 워낙 견고할 뿐 아니라 남성문화로서 확고히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여성의 자기서사에는 적절치 않았던 것이다.

여성들은 “암글”이리 멸시되었던 한글을 수단으로 하여 자기표현이 영역을 확대시켜 나갔다. 남성들이 한글을 “암글”이라 호명한 사실에는 한문이야말로 당당한 “수글”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이 함축되어 있다. 한글의 창제와 보급은 조선여성의 글읽기와 글쓰기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사건이었다. 성종조 이래 여성이테올로지 교육을 위한 각종 언해본 교화서가 지속적으로 편찬 보급되었으니, 『삼강행실』과 『열녀전』, 『내훈』, 『여사서』 등이 그것이다.²⁶⁾ 이들 교화서를 통해 여성사회에 보급된 한글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여성 글쓰기의 주요한 수단으로 일반화되었다. 전통시대에 한문이 상

25) 허미자 편, 『조선조 여류시문전집』 전4권(태학사, 1989)에 조선시대 여성들의 한시문이 망라되어 있다.

26) 이능화, 앞의 책, pp. 524~530.

당정도 남성성별화된 매체였다면, 한글은 상당정도 여성성별화된 매체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여성들은 유교적 교화서 읽기를 통해 익힌 한글로 점차 편지, 제문, 일기를 비롯한 일상의 글쓰기를 하게 되었다. 이덕무는 여성이 한글소설을 읽거나 한글로 번역된 가곡을 익히는 것을 극력 반대하였다. 하지만 “비록 부인이라도 또한 훈민정음의 상생상변(相生相變)하는 이치를 밝게 알아야 한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말하고 편지하는 것이 촌스럽고 비루하여 격식을 갖추 수 없다”²⁷⁾고 하거나 “언문편지를 쓸 때는, 말은 반드시 분명하고 간략하게 하고, 글자는 반드시 또박또박 써야한다”²⁸⁾고 하여 여성들의 한글편지만큼은 그 실제적 필요성을 인정하였다.²⁹⁾ 편지와 같은 실용문을 통해 한글 글쓰기를 일상화한 여성들은 점차 가사나 소설을 창작하기에 이르렀으며, 편지나 가사를 자기서사의 글쓰기로 전용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의 여성들은 특정 장르에 구애되지 않고 일상의 구어 — 즉 말하기 — 에 바탕하여 자기서사의 글쓰기를 하였다. 특히 규방가사는 자기서사의 글쓰기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바, 수많은 평범한 여성들이 규방가사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서술하고 성찰하였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왕실여성, 양반여성, 기생에 국한된 활동이었다. 대다수의 평민 여성들은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이처럼 조선후기에 이르러 여성의 한글글쓰기는 확산되는 추세였다. 하지만 글은 그것이 자족적인 글쓰기인가 소통을 전제로 한 글쓰기인가, 사적인 독자를 상대로 쓰는가 공적인 독자를 상대로 쓰는가에 따라 성격과 의미가 판이해지게 된다. ‘글의 유통상황’이 텍스트의 의미형성에 직접 관여하게 마련이다.

조선시대 여성의 글씨나 글이 가족 범위 밖의 공적인 세계, 이른바 ‘외간

27) “訓民正音, (...) 雖婦人, 亦當明曉其相生相變之妙, 不知此, 辭令書尺, 野陋疎舛, 無以爲式”(이덕무, 앞의 글).

28) “凡作謄書, 語必明約, 字必疎整”(위와 같음)

29) 위와 같음.

(外間)에 전해지는 것은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허난설헌이 자신이 쓴 글을 모두 태워버리라고 유언을 했다는 기록³⁰⁾이라든가, 혹은 해경궁 홍씨가 궁중에 들어온 후 친정과의 편지왕래가 빈번했으나, 친정아버지의 명에 따라 편지를 모두 물로 씻어 버려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고 한 기록³¹⁾, 그리고 앞서 이덕무의 언급이나 「내훈」의 후부인에 대한 언급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여성이 쓴 글은 대개 가족이나 친족 내에서 유통되었으며, 기껏해야 공동체나 지역범위의 여성들 사이에서 유통되었다. 더구나 여성 자신이나 가족의 실제사실과 직접 관련된 기록은 가족공간 밖으로의 유통이 금기시되었다. 가장 널리 유통되었으리라 추측되는 것은 규방가사 형식의 자기서사이다. 규방가사는 주로 여성들의 혼인을 통해 한 가문에서 다른 가문으로 전이 되었지만 대개는 지역 공동체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유통되었다. 이처럼 여성의 자기서사는 창작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창작되었다 해도 제한적으로만 유통되었다. 요컨대 조선시대 여성 자기서사의 텍스트는 가족적인 글쓰기이거나 혹은 사적인 소통을 위한 글쓰기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여성의 자기서사의 작자-독자 관계도 남성적 상황이나 근대적 상황과는 사뭇 달랐다. 남성의 자기서사는 작자의 문집에 수록되어 유통되거나 정식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반면 여성들의 자기서사는 모두 필시본으로 되어있으며, 유통범위도 상대적으로 협소하였다. 전통시대 남성의 자기서사는 공식적인 문집을 매개로 유통되었기에 그 독자의 성별 및 계층에 있어 다소 제한성은 있었으나 상당정도 공적인 작자-독자 관계가 전제된 것이었다. 또한 근대의 자기서사는 근대적 출판관행을 배경으로 한 것이기에 성별과 계층의 제한 없이 무한히 개방된 작자-독자 관계가 전제된 것이었

30) 『난설헌문집』(한국역대문집총서 2357, 경인문화사 간행, 1997)에 붙인 허균의 발문.

31) 책의 제목 표기는 편이상 현대표기인 「한중록」으로 한다. 「한중록」에는 여러 판본이 있으나 일사본에 의거한다. 뒤에 언급하는 1편, 2편, 3편, 4편의 구분도 일사본에 따른다. 일사본은 이병기·김동욱 교주, 「한동록」(민증서관, 1961)으로 출판되어 있다. 위 기록은 「한동록」(위의 책), p. 2.

다. 반면 전통시대의 여성이 익명의 다중(多衆)을 상대로 글을 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고, 독자는 실제 작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를 알려면 알 수도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요컨대 전통시대 여성 자기서사의 일반적인 작자-독자 관계는 성별, 계층, 지역에 있어 제한적이고 비개방적인 것이었으며, 그런만큼 공적 성격이 미약하였다.

조선후기 여성작자가 상정한 자기서사의 독자는 대체로 자기자신, 가족, 여성일반으로 나뉘어진다.³²⁾ 독자가 자신인 경우는 글쓰기 자체에만 의미를 두었을 뿐, 아예 그 어떤 독자도 상정하지 않은 자족적인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독자가 가족인 경우는 자식·형제·시집식구·후손 등에게 자신의 과거사나 생각 등을 알리기 위해 쓴 것으로 사적인 소통을 목적으로 한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독자를 여성일반으로 상정한 경우도 다수 있다. 탄식가류 규방가사³³⁾ 중에는 흔히 “어화 세상사람들이”, “어와 우리 부녀들이”, “어와 우리 동유들이” 같은 말을 문면에 내세운 글들이 있다. 이는 작자가

32) 물론 자기서사의 과정에서 작자가 의식하는 독자는 변화할 수도 있었고, 작자가 의도한 독자와 실제 독자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

33) 규방가사는 그 내용에 따라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대표적인 규방가사 자료수집가이자 연구자인 권영철 교수는 규방가사를 그 내용에 따라 21개로 나눈 바 있다. 권영철, 『규방가사연구』(이우출판사, 1980.) 계녀가류, 탄식가류, 화전가류 이 세 유형이 규방가사의 주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자기서사와 가장 관련깊은 유형은 탄식가류 규방가사이다. 계녀가류나 화전가류 중에서도 자기서사의 텍스트가 혹 있을 수 있지만 극히 예외적이다. 기행가류 규방가사는 여성작자의 여행체험이 서술되어 있지만, 그것은 작자의 인생에 관한 성찰과는 다분히 분리된 외면적 경험의 서술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자기서사로 보기 어렵다. 탄식가류는 규방가사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창작되어 단독으로 자료집이 출판되어 있을 정도이며, 현재 알려진 자료만 백 수십 편에 이른다

지금까지 출판된 탄식가류 규방가사의 주요 자료집과 작품수를 들면 다음과 같다.

권영철 편, 『규방가사-신변탄식류』(효성여자대학교출판부, 1985) 88편.

권영철 편, 『규방가사 I』(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2. 신변탄식류’에 11편.

영천시 편, 『규방가사집』(1988); ‘1. 자조탄식’에 30편.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 1-51(아세아문화사, 1987-1998); 약 60여 편.

불특정의 독자를 대상으로 글을 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그 불특정의 독자도 대개는 지역공동체 내의 여성들이거나 혹은 친족공동체 내의 여성들인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된다. 작자-독자 관계의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의 텍스트는 자족적이거나 사적인 성격이 강하였고 사실성이 중시될 수 밖에 없었다.

3) 자기서사의 동기

모든 여성들이 다 자기서사의 필요성을 느끼거나 자기서사의 글을 남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자기서사 속에 재현된 삶이 평균적이거나 일반적인 여성의 삶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여성들이 자기서사를 하는가? 왜, 그리고 누구를 향해 자기서사를 하는가?

자기서사의 동기는 여성의 존재상황이나 작자-독자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다양한 자기모색과 글쓰기가 장려되는 사회인가, 억압되는 사회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³⁴⁾

우선 전통시대에 어떤 여성들이 자기서사를 했는지 보기로 하자. 전통시대 여성의 자기서사 중에서 작자가 스스로의 삶을 성공적인 것으로 인식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복선화음가」³⁵⁾, 「기생명선사술가」³⁶⁾, 「생조감구가」³⁷⁾

34) 예컨대 1990년대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의 자기서사가 폭넓은 대중적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전대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사회적 현상이다.

35) 「복선화음가」에는 많은 이본이 있다. 이본이 많다는 사실은 유통과 전사의 과정에서 다수에 의한 개작이 행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선화음가」는 여러 사람의 경험이 누적된 텍스트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본에 따라서는 다소간의 허구성이 개입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기서사의 '사실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도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이 규방가사로서 유통되었다는 점, 여성 1인칭 화자의 서술이라는 점, 여성의 일생을 회고하는 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는 여성의 자기서사로 보아 타당하다고 본다.

「복선화음가」는 어느 이본을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 논의가 다소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복선화음가」의 이본은 크게 '계녀형'과 '전기형'으로 나뉘는바, 본 논문은 여성의 자기서사에 관심을 갖고 있기에 '전기형'의 대표적 이본

의 작자만이 자기 삶에 대한 강한 긍정과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다. 전통시대 자기서사의 작가 대부분은 자신의 삶을 불행하거나 고통스럽거나 실패한 것으로 인식하곤 한다.

여성 작자가 인생의 성패 여부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당대의 지배적인 여성담론이 여성의 바람직한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성공적인 삶을 산 것으로 인정된 여성의 인생은 그 자신에 의해 기록되기보다는 남성들에 의해 기록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사대부남성에 의한 여성서사가 엄청나게 양산되었다. 여성서사는 대개 정통적인 한문학 장르인 행장(行狀), 묘지(墓誌), 묘갈(墓碣)이나 실기(實記), 유사(遺事)의 형식으로 씌어졌으며 그것은 당당히 남성작자의 문집에 수록되었다.³⁶⁾ 기록된 여성은 대개 남성작자의 할머니나 어머니 혹은 가까

인 권영철 편, 『규방가사 I』에 수록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다. 「복선화음가」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선애, 「복선화음가연구」(『여성문학연구』 11집, 효성여자대학교여성문제연구소, 1982); 서영숙, 「복선화음가류 가사의 서술구조와 의미」(『한국여성가사연구』, 국학자료원, 1996); 장정수, 「복선화음가 연구」(『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p. 289.

36) 이 작품은 정병설 교수가 발굴 소개한 『소수록』(국립도서관 소장본)에 수록되어 있다. 원래는 서두에 ‘춘 희영 명귀 명선이라’고 기록되었을 뿐 정식 제목이 없는 데, 정병설 교수가 「기생명선자술가」라 명명하였다. 정병설, 「해주시생 명선의 인생독백」(『문헌과 해석』, 2001년 여름호) 참조.

37) ‘생조감구가’의 한문표기는 ‘生朝感舊歌’로 추정되는데, ‘생일날 아침 옛일을 회고하는 노래’라는 뜻이다. 이 가사의 작자는 안동지역의 유림가문에서 태어나 경주 양좌촌 회재선생의 후손에게 시집간 사람이다.

「생조감구가」는 「내방가사자료」(『한국문화연구원논총』 제15집, 이화여자대학교, 1970) 및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아세아문화사, 1987-1998), 제13권에 수록되어 있다. 두 텍스트는 필체도 다르고 세부표현에도 출입이 있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이 작품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이상택, 「개화기 서사가사 시고」(『진단학보』 39, 진단학회, 1975)가 있다.

38) 이러한 텍스트 중 대표적인 것들이 박석무 편역, 『나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현대실학사, 1998)에 수록되어 있어 참조된다. 조선후기 남성에 의한 여성담론의 텍스트는 아주 방대하다. 이 자료들을 정리하고 그 구체적 양상과 의미를 검토하는 일은 별도의 과제로 돌린다.

운 친족이나 지인의 어머니, 아내 등인 경우가 많았다. 남성작자와 동일한 가문에 속하거나 그 직계존속인 경우가 많았다. 여성들은 모두 고인이었고, 그들은 생전에 유교적 부덕에 충실했으며, 어머니·아내·며느리로서 지극히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들은 모두 유교적 여성 규범에 비추어 볼 때 성공적인 삶을 산 여성들이었다. 남성들은 이들 여성의 생애를 기록함으로써 그 가문의 명예를 높이고, 나아가서는 유교적 여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려는 동기를 지니고 있었다. 지배담론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 성공한 여성들이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의 삶을 글로 쓰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여성 글쓰기가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시대상황을 고려하던 이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들은 죽은 후에야 남성들에 의해서 그 삶이 문자화되었고 칭송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기 어려운 여성들이 자기서사의 글을 남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작자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불행한 것으로 인식한 경우가 많았다. 인목대비는 서궁에 유폐되어 자신의 생애를 슬회했다. 혜경궁 홍씨는 시아버지에 의해 남편이 죽임을 당하는 현실을 감당해야 했다. 「조귀록」과 「규한록」의 작자들은 자식도 없이 각각 20세와 17세에 남편을 잃고 청상과부로서의 삶을 살았다.³⁹⁾ 탄식가류 규망가사의 작자들은 결혼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혹은 시집살이, 남편과의 생이별, 남편의 죽음, 가난 등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군산월애원가」⁴⁰⁾의 작자는 남자로부터 버림받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

그러면 전통시대의 여성들이 자기서사의 글을 쓴 이유나 동기는 무엇인가? 자기서사의 동기는 개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어, 몇 가지로 한정

39) 「조귀록」과 「규한록」에 대한 자세한 것은 박혜숙, 「여성적 정체성과 자기서사 - '조귀록'과 '규한록'의 경우」(『고전문학연구』 20집, 2001) 참조.

40) 「군산월애원가」의 원문은 이정진, 「『군산월애원가』 고」(『향토문화연구』 3집, 원광대, 1986)에 수록되어 있다. 위의 논문 및 고순희, 「『군산월애원가』의 작품세계와 19세기 여성현실」(『우리문학의 여성성·남성성』, 월인, 2001)에서 이 작품의 작자를 군산월이라 추정한 바 있다.

하거나 구획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자기서사에는 자기탐색, 자기표현, 자기현시, 자기합리화, 자기치유, 자기해명 등의 동기들이 관련되곤 한다. 특정한 동기가 두드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동기가 착종되기도 한다.

모든 자기서사는 기본적으로 자기탐색과 자기표현의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서사는 “나의 삶은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존재와 삶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스스로 일정한 답을 내리려는 시도에서 씌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에 관한 특정한 이미지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에 입각하여 자신을 재구성하고 형상화하려는 의도가 불가피하게 개입되곤 한다. 의식적이든 반(半)무의식적이든 간에 ‘남에게 말할만한 자기’, 혹은 ‘기억하고 싶은 자기’의 이미지를 설정하고 그에 부합되는 것은 강조하거나 확대하여 기록하며, 부합되지 않는 것은 소홀히 취급하거나 생략하기도 한다. 이처럼 모든 자기서사에는 특정한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려는 동기가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자기서사의 동기는 인생의 성패여부에 대한 작자 자신의 평가가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작자가 자신의 삶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불행한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성공의 서사가 있는가 하면 불행의 서사도 있는 셈이다.⁴¹⁾ 작자가 자신의 삶을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자기서사는 자기현시 혹은 자기합리화의 동기에 지배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자신의 삶을 불행하거나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자기서사는 자기치유와 자기해명의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곤 한다.

작자가 자신의 삶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복선화음가」, 「기생명선자술가」, 「생조감구가」는 강한 자기현시나 자기합리화의 동기에 의해 씌어졌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복선화음가」나 「생조감구가」는 노년에 이른 작자가 자녀들을 1차 독자로 상징했다는 점,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

41) 전통시대 남성의 자기서사에는 성공의 서사나 불행의 서사만이 아니라, 답답한 보고나 성찰의 서사가 존재하는 데 반해서, 전통시대 여성의 서사는 성공 아니면 불행으로 양분화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문을 지킨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점으로 인해 자기현시와 자기합리화의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게 되었다. 한편 「기생명선자술가」의 작자는 평소 소망했던 신분상승에 성공했고 그런 자신을 드러내 자랑하려는 동기에서 자기서사를 했다. 이처럼 성공의 서사에는 자기현시와 자기합리화의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통시대 자기서사의 작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불행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다수의 여성작자들은 삶에서의 불만족, 고통, 회한, 좌절, 실패를 응시하면서 글쓰기를 통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자신과 타인들을 향해 납득시킴으로써 자기 존재와 인생을 해명하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내면적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자 하였다. 인목대비는 “억울한 사정은 종이가 일천 발이 넘는다해도 다 쓰지 못하겠지만 “하도 가슴이 답답하여” 글을 쓴다고 했으며, 「규한록」의 이씨부인은 “천지를 뚫고 깨칠 듯 쌓인 회포 장황하여” “눈에 피가 나올 듯 팔이 부어”서 기록한다고 했다. 탄식가류 규방가사⁴²⁾의 작자들은 “에달고 원통하여 발광

42) 이하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작품들은 탄식가류 규방가사 중에서도 자기서사가 두드러지는 것들이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의 작품인용은 적절하게 현대어로 표기하기로 한다. 탄식가류 규방가사의 작품이 양적으로 많은 까닭에, 그 주된 내용에 따라 몇 가지로 유별하고 그 대표적 작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물론 그 유별(類別)이 분명치 않은 경우도 있다. 탄식가류 규방가사 중 자기서사로 간주할 수 있는 작품은 이외에도 물론 있을 수 있다.

- ㉗ 친정에 대한 그리움을 위주로 한 자기서사: 「정부인자탄가」(권영철 편, 「규방가사 -신변탄식류」, 제14작품), 「봉우사모가」(같은 책, 제72작품), 「사친가」(같은 책, 제86작품), 「여자소회가라」(같은 책, 제6작품), 「여자유행가」(최태호 편, 「내방가사」, 형설출판사, 1980.), 「사친가」(최태호 편, 같은 책).
- ㉘ 결혼생활의 어려움(시집살이, 가난 등)을 위주로 한 자기서사: 「부녀가」(권영철 편, 「규방가사 -신변탄식류」, 제5작품), 「창회곡」(같은 책, 제13작품), 「여자가라」(같은 책, 제15작품), 「한별곡」(같은 책, 제44작품).
- ㉙ 남편과의 생이별로 인한 고통을 위주로 한 자기서사: 「단심곡」(권영철 편, 「규방가사 -신변탄식류」, 제61작품.), 「석골색씨 설은 타령」(권영철 편, 「규방가사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이별가」(권영철 편, 「규방가사 -신변탄식류」, 제53작품), 「원별가」(같은 책, 제57작품).

가사 지었”(「부녀가」)다고 하거나, “가슴 막혀 얼굴을 가리고 눈물 흘리는 뜻을 차마 다 적지 못”(「사친가」)한다거나, “심신이 둘 곳 없어 횡설수설”(「리씨회심곡」) 글을 지었다고 하거나, “흥중의 만단회포”(「여자소회가라」)를 기록한다고도 하였다. 이처럼 자기서사의 여성작자들은 글쓰기를 통해 억눌린 슬픔과 한을 풀어냄으로써 자기를 스스로 치유하고자 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자기서사의 동기는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가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다. 독자를 자신으로 상정한 경우, 자기서사는 고통과 한을 토로함으로써 스스로를 치유하고 찢겨진 자아를 내면적으로 복원하려는 동기가 우선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인목대비술회문」⁴³⁾이나 탄식가류 규방가사의

㉠ **과부로서의 삶을 위주로 한 자기서사:** 「청상가」(권영철 편, 「규방가사 - 신변탄식류」, 제48작품.), 「상사몽」(같은 책, 제52작품), 「여자탄식가」(같은 책, 제58작품.), 「리씨회심곡」(같은 책, 제1작품.), 「과부가」(같은 책, 제46작품.), 「이부가」(같은 책, 제49작품.)

㉡ **어머니로서의 삶을 위주로 한 자기서사:** 「청상가」(권영철 편, 「규방가사 - 신변탄식류」, 제48작품.), 「상사몽」(같은 책, 제52작품), 「여자탄식가」(같은 책, 제58작품.), 「리씨회심곡」(같은 책, 제1작품.), 「과부가」(같은 책, 제46작품.), 「이부가」(같은 책, 제49작품.)

㉢ **기타:** 「두견문담설화라」(권영철 편, 「규방가사 - 신변탄식류」, 제29작품.), 「간운사」(같은 책, 제84작품.) 구한말 방랑의 삶을 살아 ‘여자 김삿갓’이라 불리기도 했다는 박내사(朴內史)의 「두견문담설화라」는 명문가에 태어나 문재도 뛰어났으나 결혼 후 친정부모, 시부모, 남편이 잇달아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일점혈육도 없이 방랑하는 삶을 살화한 것이다. 「간운사」는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한 남편을 따라 고국을 떠나 사는 신세와 형제에 대한 그리움을 살화한 편지체의 가사이다. 두 작품 모두 특수한 개인사를 서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통시대 여성의 일반적 존재조건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경우는 아니다. 박내사란 인물은 그 특이한 삶으로 인해 주목된다. 그는 고령박씨로서 친정은 고령군 직동(直洞)이며 시집은 고령군 윤동(倫洞)의 의성 김씨 문중이었다고 한다. 방랑하다가 궁궐에 출입한 적이 있다고도 하며, 특이한 음식을 잘 만들었다고도 한다. 영남일대에서는 유명했던 인물이나 그 후손이 없어 현재로서는 자세한 내력을 알기 어렵다.

43) 이 글은 원래 제목이 없었으나, 『문학사상』 2호(1972년)에 소개될 때, 김일근 교수에 의해 이름붙여졌다.

다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독자를 가족이나 후손으로 상정한 경우, 자기서사는 자기치유의 동기, 자기해명의 동기 나아가서는 과거의 시비를 적극 교정하려는 동기가 작용하기도 한다. 혜경궁 홍씨는 처음에는 친정동생과 후손을 독자로 상정하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점차 손자인 순조임금을 제1독자로 상정하면서 “주상이 자손으로 그때 일을 망연히 모르는 것이 망극하고, 또한 시비를 분별치 못하실까 민망하여 마지못해 이렇게 기록한다”(『한중록』 제1편)거나 혹은 “주상이 시비를 분간하여 내 지원(至冤)을 풀어주실 날이 있을 줄 안다”(『한중록』 제3편)고 하여 단순한 해명에서 점차 과거를 적극 교정하려는 동기로 나아가고 있다. 『규한록』의 이씨부인은 시어른들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적극 자기를 해명하였다. 『주기록』의 조씨부인은 첫째는 스스로의 기억을 위해서, 둘째는 후손들에게 과거사를 알리기 위해 글을 쓴다고 밝힌 바 있다.⁴⁴ 조씨부인은 자신이 비록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하고 투생의 삶을 살고 있으나 자신은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점, 며느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함으로써 스스로를 향해, 그리고 후손들을 향해 자기를 해명하고 있다. 한편, 규방가사 중에서도 자식들(『소회가』)이나 형제(『간운사』)에게 자신을 알리려는 동기에서 씌어진 글들이 있다.

독자를 여성일반으로 상정한 경우는 (탄식가류 규방가사 중 「사친가」, 「부녀가」, 「여자가라」, 「상사몽」 등)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표출할 뿐 아니라 그를 여성 일반과 공유함으로써 심리적인 유대감을 통한 집단적인 자기치유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자기서사를 남긴 여성은 자신의 삶을 성공적인 것이라 여길 수도 있고, 고통스럽거나 실패한 것이라 여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이 당대의 평균적인 여성의 삶이나 혹은 이상적인 여성적 삶과는 무엇인가 다른 면이 있다고 인식한 점에서는 공통적이었으며, 그 다른 면을 인식하거나

44) “대강을 기록하야 나의 심전에 두고 목전스듯치 낫지 말며 후생비네 일을 알과져 잠간 기록하니”(『주기록』, 6면)

정당화하는 차원에서 자기서사의 글쓰기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생의 의미가 타인에 의해 규정되거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해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자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특정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스스로 의미를 확정하려는 충동과 동기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 필자 : 인하대 교수

Absract

Self-Narratives by Korean Women(1)

Park, Hye-sook(Inha Univ.)

Choi, Kyeong-hee(Chicago Univ.)

Park, Hee-byoung(Seoul Nat'l Univ.)

This paper studied the traditional self-narratives by Korean Women. This is the first part of the study which is aimed at examining the historical changes of Korean women's identities and various aspects of self-narratives by them from traditional period to modern.

In I, 'self-narrative' was conceptualized as follows. Self-narrative is a kind of writing mode in which teller tells one's own story on condition that it is real, and reflects one's life as a whole, and asks its meaning.

In II, followings had been studied. Basic features of traditional self-narratives by Korean men compared with by Korean women. Writing situations of women's self-narratives and writer-reader relation in traditional period. Various aspects of self writing motives and the meanings in connection with the traditional Korean women's life situations and writer-reader relation. Traditional Korean women writers who had written self-narratives could regard one's life as a success or a failure. But they had thought their life something exceptional or special compared with the ideal or ordinary types of women's life in their period. They had written self-narratives to recognize and justify

that differences. They didn't want their life meaning was settled by other persons or their life was known to as something different from the facts they thought. Preventing such possibilities, they had reconstructed their lives in a specified perspective they thought as real and had tried to settle the meaning of life by themselves.

Futher things such as the representations of traditional feminine "I" in the prominent works, the relations between self-narratives by Korean women and Confucian values or ideology, traditional feminine experiences represented in women's self-narratives, the characters of modern self-narratives by Korean women and so on will be treated in succeeding papers.